

2007 품.을.쓴.다

3 목포 극단 '갯돌'



박진현의 문화카레

눈가림용 여론수렴행사 역겹다

언제부턴가 광주 문화계에는 문화단체들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하나의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여론수렴을 빙자한 일회성 행사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근래 2~3년동안 이 지역에서는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봇물을 이뤘다.

학술행사의 대부분이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말 발표된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안은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비참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그 뿐인가. 이 설계안에는 전문 미술관과 공연장이 배제돼 세계적 수준의 무대를 갈망한 문화예술인들을 허탈감에 빠뜨렸다.

사실 이같은 의혹들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최근 1~2년 동안 추진되던 각종 소위 코드에 맞는 일부 진보단체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적올리기'의 전형임을 보는 듯했다.

세밀을 앞둔 지난해 12월 말, 광주비엔날레와 총장로 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플러서스 작가들은 다른 기록사진과 영상물, 백남준의 비디오나 판화작품 일부,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재학생 등 어린이들이 백남준의 작품을 보고 만든 미술작품들도 보여준다.

플러서스 운동을 함께 했던 작가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소개하는 교육적인 전시로 꾸며진다.

마당극 지킴이 "이젠 세계와 친구"

지난 4일, 목포 유달산 자락의 폐교에 자리한 극단 '갯돌'(대표 이방수)은 활기가 넘쳤다.

지난 1981년 창단 후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의 든든한 문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갯돌'은 오는 15~31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인디언 원주민 마을인 치헤일리스를 방문, 뜻깊은 2007년을 시작한다.



캐나다 인디언 원주민 마을인 치헤일리스를 방문할 극단 '갯돌' 단원들이 지난 4일 현지에서 공연할 마당극 '밥' 연습에 한창이다.

캐나다 찾아 '나눔의 장'

2003년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생명살림 천지굿을 인연으로 만난 치헤일리스 인디언 밴드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 땅을 밟게 되는 단원들은 원주민 마을 뿐 아니라, 밴쿠버 한인 교민사회를 찾아 마당극 '밥',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전통 연희 양식인 마당극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갯돌'과 백인들 사이에서 꽃피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해 가고 있는 치헤일리스 인디언들은 고유한 전통을 중시하고 나눔과 생태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갯돌'이 공식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밥'은 삶의 모태인 '밥'의 의미를 전라도 특유의 몸짓과 재담,

남도소리로 풀어낸 마당극으로 해학이 넘친다. 단원들은 또 언어가 튀어오르는 해리스강가에서 전라도의 전통 기원놀이인 '파뻬놀이'로 치헤일리스의 안부와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며 양국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교민사회를 찾는 것도 중요 일정 중 하나다. 마당극과 '진도아리랑',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교민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예정이며 현지 음악단체인 '코마'와 함께 프러스타일 공연도 준비중이다.

'Y'극회 민예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갯돌'은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마당극'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다.

지난 2001년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작한 '목포우수마당극제전'은 이

오는 29일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타계한지 1년되는 날이다.

타계 후에도 백남준의 작품은 경매시장이나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꾸준히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 전시공간에서 1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는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주기를 맞아 2~3월 중 백남준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미술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을 중심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故백남준, 조용한 1주기 맞을 듯

갤러리 '쌈지'·국립현대미술관 기념전...별도 추모식은 없어

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사동의 갤러리 쌈지는 '백남준과 플러서스 친구들'전을 29일부터 두 달 간 계속한다.

백남준과 절친했던 요제프 보이스나 존 케이지, 플러서스 운동을 함께 했던 작가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소개하는 교육적인 전시로 꾸며진다.

Large advertisement for 'Chonnam Gosi 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Budeongsan' (대인동삼일부동산)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LCE Tower, and providing contact details for agents.